

# 2002年度 中華醫史雜誌 收錄論文 分析

車雄碩<sup>1)</sup>

## <內容摘要>

這篇文章是對於2002年刊行中華醫史雜誌的分析. 在2002年刊行中華醫史雜誌登記的論文編修大約80余篇. 筆者把收錄論文按照主題分爲12個分野來分析. 這篇文章的主要目的就是通過分析中華醫史雜誌收錄論文來理解中國醫史學研究傾向.

## I. 머리글

이 글은 2002년에 발간된 중국의 중화의사잡지에 게재된 주요논문의 목록을 수록하고 수록된 논문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한 글이다. 중화의사잡지는 1947년 3월에 창간하였으며 계간으로 매년 4권의 잡지가 발행된다. 60년대 문화혁명시절에는 잠시 정간되기도 하였다. 이 잡지는 中國科學技術協會와 中華醫學會가 주관하며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에서 출판한다. 올해는 32권이며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1기, 2기, 3기, 4기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같은 권수 즉 같은 해에 발행되는 논문은 페이지번호가 이어지며, 당해연도 마지막에 발행되는 4기에는 1기부터 4기까지의 총목차가 권말에 실린다. 매년 간행되는 잡지에는 述評, 論著, 綜述, 史料與文獻, 考古與文物, 論壇與爭鳴, 書評, 短篇論述, 醫藥史話, 會議紀要, 簡訊, 征文, 消息, 出版消息, 訃告, 讀者·作者·編者 등 십여 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글은 주로 論著, 綜述, 史料與文獻, 考古與文物, 論壇與爭鳴, 短篇論述에 실린다.<sup>2)</sup>

본고에서는 2002년에 발행된 중화의사잡지 32권1期-4期까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논문의 목록<sup>3)</sup>을 싣고 이를 다음 12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sup>4)</sup>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2) 이 중에서 綜述, 史料與文獻, 考古與文物의 내용은 권호에 따라 빠진 것도 있다.

3) 論著, 綜述, 史料與文獻, 考古與文物, 論壇與爭鳴, 短篇論述에 실린 논문

4) 본고에서 필자는 서양의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목록에만 기재하고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1. 근대의학사연구
2. 한국 및 대만관련
3. 업적정리
4. 판본 및 서지학적 연구
5. 의학자의 의학사상 연구
6. 의서연구
7. 중서의결합과 중서의회통
8. 의학사연구에 있어 儒學의 영향에 관한 연구
9. 학과 및 분과의 의학사 관련연구
10. 소수민족 및 지방의학사연구
11. 병명연구
12. 기타

## II. 2002년도 중화 의사잡지 수록논문 목록<sup>5)</sup>

1. 中華醫史雜誌 32卷 1期 2002년 1월 발행

### 論著

- 20世紀初美國高等醫學教育改革歷程回顧與分析 張艷榮 5  
內窺鏡發展史 呂平 10  
腎上腺外科發展簡史 楊嗣星 15  
中國近代出版的西醫護理書籍 盧萍 19  
難經本義原刻殘卷考察 史常永 24  
類經版本初考 趙含森 26  
黃以周治『內經』 胡本祥 29  
略論儒家中庸思想對中醫方劑學的影響 袁冰 32  
吳鞠通『溫病條辨』對『傷寒論』的繼承與發展 黃海 36  
汪紀石脾胃學術思想探析 紀立金 39

---

5)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대표저자 1인만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저자 뒤의 숫자는 논문집의 페이지임.

王孟英養陰保津學說探討 馮崇廉 42

文仕通醫現象析因 黃芝蓉 45

### 史料與文獻

近現代臺灣的醫學院校 高田 49

### 考古與文物

海外兩具古銅人的考證 靳士英 54

### 論壇與爭鳴

眼科中西醫結合歷史的回顧 殷納新 57

### 短篇論述

『本草綱目』瘰癧徹骨痒 何義勇 9

柯逢時與武昌醫館 朱祥麟 14

歷史上的炭疽熱研究與細菌戰 李志平 18

『衛濟寶書』淫肉釋義 孫啓明 25

我國著名的眼科學者畢華德教授 楊鈞 31

近代醫家在中西醫眼科匯通中的醫事活動 余永燕 56

花柳毒淋小議 李順民 61

## 2. 中華醫史雜誌 32卷 2期 2002년 4월 발행

### 論著

40年代的中醫師檢核委員會概況 張志斌 67

民國時期執業醫師許可制的健全科程 田曉旭 73

關於韓醫師資格考核制度的研究 李炫知 金敬喆 申舜植 78

蔡西山『脈經』考 鄭金生 82

『證類本草』墨蓋下引“唐本”，“唐本注”討論 尙志鈞 85

『千金要方』異文對照與研究 林楠 87

『四部醫典』中的鍼灸學內容 白純 92

兒科寒溫兩派學術爭鳴的源流與影響 朱錦善 94

中國第一臺X光診斷機的引進 鄧紹根 99

西方醫院發展簡史 方崇亮 102

### 綜述

近50年的中國古代疫情研究 賴文 108

### 史料與文獻

兩位醫學家的自傳 程之范 114

#### 論壇與爭鳴

中西醫結合與中西醫匯通的本質區別 王振瑞 122

古醫書的脉是血脈非灸療感傳 毛良 125

#### 短篇論述

醫學史文獻在我國期間中的分布初步調查 叢愛玲 77

歐洲大陸的現代瘟疫 李志平 113

近代山東幾種傳染病的相關史料 姜志平 119

蔣寶素生卒年代初考 喬洪華 129

3. 中華醫史雜誌 32卷 3期 2002년 7월 발행

#### 論著

宋明理學對中醫學理論的影響 孟慶云 131

方劑學發展思想的兩個特徵 張家璋 135

史堪之史載之方考 王振國 140

許任鍼灸經驗方及其遺傳 王宗欣 145

吳氏傷寒金鏡錄學術淵源探討 梁嶸 148

王如尊手抄本東醫寶鑑探討 閻桂銀 151

戰國至三國時期我國外科學成就 周俊兵 155

華佗“六部三法”傷寒學說的歷史意義 曹東義 159

臺灣大學醫學院百年史 哈鴻潛 163

近代山西中西醫匯通醫事述略 劉星 170

近代民衆和醫生對鼠疫的觀察與命名 李玉尚 173

現代醫學頭頸癌治療史 郭傳瓊 179

#### 綜述

30年來武威漢代醫學研究進展 張延昌 184

#### 論壇與爭鳴

藏醫學起源的新探索 香多李先加 188

#### 短篇論述

口疳專著『走馬急疳真方』 谷勝東 144

保心石研究 甄雪燕 154

50年來我國王清任研究概況 劉玉璋 169

近10年國外醫學通史的研究與著述 李志平 191

#### 簡訊

北京中醫藥大學著名中醫藥專家暢談“中醫藥現狀與未來” 張其成 172

3. 中華醫史雜誌 32卷 4期 2002년 10월 발행

#### 論著

浙江畬族民間醫藥衛生述要 竹劍平 195

“岐黃”考釋 朱建平 200

石振鐸『本草補』研究 甄雪燕 205

宋版洪氏集驗方傷寒要旨藥方版本遺傳簡考 錢超塵 208

類經底本研究 郭玲 213

『五十二病方』烏頭中毒解救方藥簡析 談宇武 216

論“神農嘗百草一日而遇七十毒”內涵 郝保華 218

黃宗羲與醫學 楊小明 223

福州地區早期的中醫雜誌 劉德榮 227

循證醫學簡史 張鳴明 230

交叉韌帶外科發展史略 尙平 234

#### 綜述

細胞凋亡學說 彭黎明 238

#### 史料與文獻

尙德延與我國現代麻醉學的發展 王古岩 243

1956年蘇聯醫學專家在陝西調查地方病的情況 辛智科 247

#### 論壇與爭鳴

『雷公炮炙論』著作年代討論 尙志鈞 250

#### 短篇論述

人類基因組圖譜的繪制進程 呂鳳云 199

近50年『傷寒論』研究論文在我國72種中醫藥期刊中的分布 熊曼琪 233

吳棫仙先生事跡簡介 黃振富 242

『衛濟寶書』軟癰考釋 孫啓明 255

### Ⅲ. 논문내용 분석

#### 1. 근대의학사연구

2002년 중화의사학회 정기학술잡지에 나와있는 근대의학사에 관한 연구논문은 크게 근대의학관계제도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주되게 발표되었다. 아울러 근대에 활동한 의학자들의 전기형식의 논문도 일부 발표되었다.

##### 1.1. 근대중의사시험제도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張志斌의 40년대 중의사 시험과 관련된 정부간행물을 분석 정리한 논문<sup>6)</sup>과 田曉旭의 근대 중의사면허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정부에서 발표한 조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기술한 논문<sup>7)</sup>이다. 장지빈의 논문은 1940년대 중국 中醫師檢核委員會(중의사를 선발하는 기준을 만들고 수정 보완하는 일과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는 일을 했던 하던 일종의 국가고시위원회)에 관한 보고서이다. 당시 회의자료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을 정리하였고 39회에 걸친 회의일시와 회의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합격자수를 표로 정리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당시 5년 이상 현지에서 의업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 유명한 스승에게서 배운 경우, 또는 집안 대대로 의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고시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인가와 난립한 사립교육기관의 학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전효욱의 논문은 중국 근대 중의사면허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중국의 근대 중의사면허증제도는 1922년 북양군벌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가 1929년에 국민당정부에 의해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1940년에 새로운 조례가 반포되었으며 1943년에 의사법이 반포되어서 지금의 중의사면허증의 모태가 되었다. 본 논문은 각 조례의 변천과정을 비교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유덕영의 “북주지방의 초기중의잡지연구<sup>8)</sup>”라는 논문은 당시 간행된 학술잡지를 고찰한 글이다. 내용은 북주지방(지금의 북건성 북주시일대)의 초기 중의학 학술잡지인 『現代醫藥』과 『醫鐸』간행과 관련한 주변정황과 잡지에 실린 주요내용 및 당시 지방 의약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 1.2. 中西醫匯通

6) 張志斌, 40年代的中醫師檢核委員會概況, 中華醫史雜誌 32卷 1期, 2002年 1月, p67

7) 田曉旭, 民國時期執業醫師許可制的健全科程, 中華醫史雜誌 32卷 2期, 2002年 4月, p73

8) 劉德榮 福州地區早期的中醫雜誌,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27

근대 중의학의 역사연구에서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는 것이 중서의회통이다. 근대 중국의 의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양의학의 도래로 전통의학의 입지가 위축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었다. 후대 의학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통칭하여 ‘中西醫匯通’이라고 명명하였는데, 당시 의학계의 판도를 좌우할 커다란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대 중의학의 역사를 연구하게 되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테마가 바로 중서의회통이다. 근대의학사연구와 관련해서 중서의회통을 중심으로 기술한 대표적인 논문이 3편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산서성 지방정부의 의약관계 문서 및 사건을 정리하여 쓴 유성의 “근대 산서성 중서의회통사업에 관한 소고”<sup>9)</sup>가 있다. 이 논문은 당시의 분위기를 중서의회통 학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한 것으로서, 당시 산서지방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중의학과 서의학을 교육하였으며 이 양자의 활동도 매우 원만했고 따라서 중국 전역에 중의폐지론이 활발할 때에도 중의학을 무조건 폐지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새로운 조류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영연의 “안과분야에 있어서 근대 의학자들의 중서의회통”<sup>10)</sup>이라는 논문이다. 중국에 중서의결합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20세기초 중서의회통학파들이 활동할 당시에 안과학분야에서 있었던 동서양의학의 결합에 관한 업적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주제로 은납신의 “안과중서의결합의 역정회고”<sup>11)</sup>라는 논문이 있는데 앞의 여영연의 논문이 근대 자연발생적인 ‘中西醫匯通’의 분위기를 설명한 논문이라면 은납신의 논문은 해방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中西醫結合’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주요인물과 저작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 1.3. 傳記類

근대의학사연구와 관련해서 의학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쓴 논문들이 몇 편 발표되었다. 주상린의 “하봉시와 무창의관”<sup>12)</sup>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1900년대 초 중국 호남성에서 최초로 근대 중의학 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하봉시에 관한 간단한 행적과 또 그가 사재를 내어 세운 근대식 중의학 교육기관인 무창의관에 관해 기술하였다. 황진

9) 劉星, 近代山西中西醫匯通醫事述略, 中華醫史雜誌 32卷 3期, 2002年 7月, p170

10) 余永燕, 近代醫家在中西醫眼科匯通中的醫事活動,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56

11) 殷納新, 眼科中西醫結合歷史的回顧,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57

12) 朱祥麟, 柯逢時與武昌醫館,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14

부의 “오탁선선생의 행적소개”<sup>13)</sup>는 20세기초에 활동했던 의학자 오탁선에 관한 간략한 전기이다. 오탁선은 1929년 국민당정부에서 중의폐지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중의학 종사자의 총파업이 있었는데 이때 중경지방에서 파업을 주도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후대 성도중의학원설립을 정부에 건의하여 인가를 받아낸 사람이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글로서 정지범의 “두분 의학자의 자서전”<sup>14)</sup>이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현재 북경의학대학 교수인 정지범 교수는 중국의 보건위생분야의 권위자였던 金寶善(1893-1984)과 피부과에 권위자였던 북경의과대학 교수 胡傳揆(1901-1986)가 생존해있을 당시 개인적으로 자서전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글은 이 두사람의 자서전을 정지범교수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학회지에 공개한 것이다.

## 2. 한국 및 대만관련

### 2.1. 한국관련

2002년도 중화지사잡지에는 한국과 관련된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편은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관한 논문이고 또 한편은 중국에 들어온 『동의보감』에 관한 논문이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즉 한국과 영국에 있는 침구동인에 관한 보고서 형식의 글과 신순식교수가 기고한 한국한의사제도에 관한 글이 있다.

이중에서 필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북경의과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왕중훈이 쓴 “허임의 침구경험방과 전래과정”<sup>15)</sup>과 엄계은의 “왕여준의 필사본 동의보감에 대한 연구”<sup>16)</sup>이다. 왕중훈은 이 논문에서 조선의 허임이 지은 『침구경험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고 아울러 『면학당침구집성』의 내용이 『침구경험방』의 내용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표절하게 된 경위를 책장사의 농간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면학당침구집성』에 내리고 있는 평가는 모두 『침구경험방』에 내려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와는 별도로 한국에서는 한국의 『침구경험방』 전문가인 박문현이 2001년 6월 한국 의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침구집성』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침구집성의 내용은 『침구경험방』 뿐 아니라 『동의보감』의 내용까지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許任鍼灸經驗方研究”<sup>17)</sup>에 정리하여 실었다. 그리고 엄계은의 논문은 중국사람 왕여준이 필사한 동의보감에 대한 고찰이다. 이 필사본은 1960년대에 장춘도

13) 黃振富, 吳棟仙先生事跡簡介,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42

14) 程之范, 兩位醫學家的自傳,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114

15) 王宗欣, 許任鍼灸經驗方及其遺傳,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45

16) 閻桂銀, 王如尊手抄本東醫寶鑑探討,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51

17) 박문현, 허임침구경험방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2.08



서관의 담당자가 항주의 고서상에게서 구입한 것이다. 논자는 이 글에서 왕여준이 필사한 『동의보감』이 중국에 전래된 최초의 『동의보감』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사본에 추가된 서문과 발문의 내용을 토대로 주변정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원래는 판각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필사본을 만들었으며 왕여준은 동의보감내의 수많은 조선 관련 기록에도 불구하고 굳이 허준을 송나라때의 어의 허준이라고 여기 까닭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즉 한국과 영국에 있는 두 개의 동인에 대한 연구논문<sup>18)</sup>이 있는데, 동인의 형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작성내력을 설명하였다. 한국에 있는 것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명나라때 중국에서 건너갔다는 설과 한국에서 직접 주조하였다는 학설이 있지만 저자는 조선시대 초기에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동인은 명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박물관의 문물 설명에 의하면 1939년에 중국에 와서 직접 수집해 간 것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직 중국 학계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신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순식 교수의 한국의 한의사제도를 소개하는 글<sup>19)</sup>이 있다. 1952년 국민의료법 제정당시의 상황 등의 한국 한의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한국 한의사의 자격범위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신순식 교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근무하던 시절,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중국 북경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다.

## 2.2. 대만관련

2002년 중화의학잡지에는 대만의 의학교육의 현황에 관해 소개한 두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高田의 “근대 대만의 의과대학”<sup>20)</sup>은 대만에 있는 臺灣大學醫學院, 國防醫學院, 高雄醫學院 陽明醫學院 등 11개 의과대학에 대해 설립경위와 연혁, 특징등에 대해 정리한 논문이며, 哈鴻潛의 “대만대학 의학원 백년사”<sup>21)</sup>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해당하는 대만의 국립의과대학의 설립과정 및 연혁에 대해 기술한 글이다. 대만도 우리나라 근대 서양의학교육기관의 변천과 유사하게 일본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다가 해방후에 미국식으로 다시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 3. 업적정리

18) 靳士英, 海外兩具古銅人的考證,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54

19) 李炫知 金敬喆 申舜植, 關於韓醫師資格考核制度的研究,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78

20) 高田, 近現代臺灣的醫學院校,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49

21) 哈鴻潛, 臺灣大學醫學院百年史,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63

중화 의사잡지에는 종종 그간의 연구업적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논문이 게재된다. 2002년도에는 상한론연구, 왕청임연구, 역병연구, 무위한대의서연구에 관한 그간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중국의 수십종의 학술잡지에서 의학사관련 문헌정보량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글이 발표되었다.

醫學史文獻在我國期間中的分布初步調查<sup>22)</sup>

중국에서 간행되는 논문집중에서 의사학 관련정보를 담고 있는 정도를 문헌계량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한 소고이다. 가장 많은 의사학 정보를 담고 있는 순서대로 中華醫史雜誌,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醫學與哲學, 中醫文獻雜誌, 上海中醫藥雜誌, 北京中醫藥大學學報 이상 7종의 잡지가 중국 학술논문집에 발표된 의사학 관련정보의 30%가량을 담고 있으며, 中華醫史雜誌에만 전체 정보량의 15%가 실려있다고 보고하였다.

近50年的中國古代疫情研究<sup>23)</sup>

이 논문은 1949년이래로 고대역병에 관한 연구논문을 다시 분석한 논문이다. 역병에 관한 자료를 수집에 치중한 연구들, 역병의 종류에 대한 분석한 연구들, 역병 유행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 고대 유행성 전염병의 특징에 관한 연구들, 고대 역병과 중의학발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 고대 역병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들, 역병과 운기학과 관련된 연구들 등 몇가지 주제로 나누어 기존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50年來我國王清任研究概況<sup>24)</sup>

2002년 왕청임 서거 170주년을 기념해서 그간의 왕청임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히 기술한 글이다. 우선 『의림개착』의 판본연구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그간 왕청임에 관한 500여편의 왕청임관련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에서 그의 처방에 관한 임상실험논문이 300여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00년 왕청임연구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는 과정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30年來武威漢代醫學研究進展<sup>25)</sup>

1972년 감숙성 무위지방에서 고의서가 발견된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 논문은 그간 무위한대 의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한 것이

22) 叢愛玲, 醫學史文獻在我國期間中的分布初步調查,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77

23) 賴文, 近50年的中國古代疫情研究,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108

24) 劉玉璋, 50年來我國王清任研究概況,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69

25) 張延昌, 30年來武威漢代醫學研究進展,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84

다. 고고학, 의학내용, 임상응용연구로 나누어 연구업적을 정리하였다.

近50年『傷寒論』研究論文在我國72種中醫藥期刊中的分布<sup>26)</sup>

최근 50년동안 중국의학계에는 상한론과 관련된 9000여편의 논문이 72종의 학술잡지에 발표되었다. 이 글은 그간 어떤 학술잡지에 몇편의 상한론 관련논문이 발표되었는지 수치를 조사하여 정리한 글이다.

#### 4. 판본 및 서지학적 연구

2002년 중화의학잡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중국 의과학계의 연구수준은 여러 방면에서 고른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판본 및 서지학관련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활동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였고 연구심도도 매우 깊어졌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번 학술잡지에 발표된 글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글이 중국중의연구원의 정금생 교수의 두 편의 글이다. 정금생 교수는 세계 각지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동양의 전통의학과 관련된 의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이며, 이미 유럽등지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그에게 매년 수 차례 위탁연구를 의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서 중국에 없는 중의학관련 고서를 발굴해 매년 학술잡지에 발표하고 있다. 그가 쓴 “채서산의 맥경에 관한 고찰”<sup>27)</sup>은 일본의 내각문고에 있는 『診脉須知』라는 책에 채서산이 지은 『맥경』<sup>28)</sup>의 일부가 채록되어있음을 밝혀내고, 戴起宗의 『脉訣刊誤集解』와 劉澂德의 『醫林續傳』 등을 토대로 고증의 사실성을 확인한 글이다. 아울러 채서산의 맥은 최초로 기경팔맥의 진단부위를 기술한 의서라고 보고하였다. 이며 또 한편은 그의 제자인 견설연의 “석진탁의 본초보에 대한 연구”<sup>29)</sup>이다. 『본초보』라는 책은 17세기말 중국에 온 스페인계 멕시코 사람이 중국어로 쓴 서양본초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일찍이 조학민의 『本草綱目拾遺』에 인용되었으며 의사학자 范行准에 의해 ‘최초의 서양약물학에 관한 책’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미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鄭金生 교수가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이 책을 찾아냈다. 이 논문은 그의 제자가 판본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고찰한 것이다.

26) 熊曼琪, 近50年『傷寒論』研究論文在我國72種中醫藥期刊中的分布,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33

27) 鄭金生, 蔡西山『脈經』考,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82

28) 원문은 현재 망실되어 전하지 않음

29) 甄雪燕, 石振鐸『本草補』研究,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05

그리고 조함삼의 “유경의 판본에 대한 고찰”<sup>30)</sup>과 곽령의 “유경저본연구”<sup>31)</sup>도 중국 의사학계의 판본연구가 한 단계 진보했음을 보여주는 논문들이다. 조함삼의 논문은 현존하는 『유경』의 판본들의 선후관계와 연원을 밝힌 글이며 논문이다. 『유경』의 판본은 『내경』의 篇目이 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데 초기에는 『내경』의 편목이 붙은 것이 유행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생략된 채로 간행되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판본은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중인 明刻本인데 현재 중국에는 이 판본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童涌泉本과 天德堂本 등 내경의 편목이 생략된 채 간행된 판본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초기의 판본을 토대로 다시 간행한 日刻本이 있으며 이것은 『내경』의 편목이 붙어있다. 그리고 곽령의 유경의 저본에 관한 연구는 장개빈이 『유경』을 지을 때 『내경』의 어떤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저자의 고찰결과 『유경』과 완전히 일치되는 『내경』의 판본은 없으며 『유경』의 소문부분은 胡氏古林書堂本, 趙府居敬堂本 등 12개 『내경』 판본과 유사하고 『유경』의 영추부분은 周曰校本, 馬蒔注九卷本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논자는 추정하기를 장개빈은 하나의 저본을 선정한 다음 다른 판본을 가져다가 교감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는 판본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상영의 “난경본의 원각본 간권에 대한 고찰”<sup>32)</sup>은 중국 군사의학과학원 도서관에 있는 『難經本義』 殘卷에 대한 서지학적인 고찰과 이 책이 활수의 난경본의를 여복이 교정간행한 원각본이며 이것이 현존하는 유일본임을 고증한 글이다. 또 중국 문헌학 연구의 권위자인 진초진 교수는 북경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洪氏集驗方』과 『傷寒要旨藥方』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과 이 송판의서들이 국가도서관에 소장되게된 경위를 소장자의 입장 등을 토대로 고찰한 글을 게재하였다.<sup>33)</sup>

### 5. 의학자의 의학사상 연구

중국 의사학계에서 역대 의학자의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되는 관련논문들은 대개가 기존의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거나 보다 심화된 내용, 혹은 기존에 의학자로 분류되지 않은 문인출신들중에서 의약관계 기록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저자미상<sup>34)</sup>의 상한금경록의 의학사상을 분석한 북경중의약대학의 양영교수의 논문이 있다.

30) 趙含森, 『類經』版本初考,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26

31) 郭玲, 『類經』底本研究郭玲,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13

32) 史常永, 『難經本義』原刻殘卷考察,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24

33) 錢超塵, 宋版『洪氏集驗方』『傷寒要旨藥方』版本遺傳簡考,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08

전자에 해당하는 논문들로는 황해의 오국통에 대한 연구<sup>35)</sup>와 기립금의 왕기석에 대한 연구<sup>36)</sup>, 풍승림의 왕맹영에 대한 연구<sup>37)</sup>가 있다. 황해는 이 논문에서 온병학자인 오국통의 의학사상을 상한론과 결부시켜 설명함으로써 그가 장중경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오국통은 『상한론』의 원방을 쓴 경우가 많고, 변방을 활용한 경우가 있으며 장중경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을 보충한 예를 들어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였다. 물론 『온병조변』에는 『상한론』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장중경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장중경의 『상한론』을 보충한 것으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왕기석의 학술사상에 대한 논문에서 논자 기립금은 왕기석은 명대 의학자로서 이동원과 주단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자신의 의학적인 견해를 구축하였지만, 구체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비위론에 치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허로병 치료에 비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다. 馮崇廉은 왕맹영의 의서를 통독하고 그가 체내의 진액을 보존하는데 매우 충실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논지를 폐위의 음기를 보충하여 신수의 음기가 간접적으로 보충되는 방식(平淡清養), 음기를 소모시키는 열을 제거함으로써 음기의 소모원을 차단하는 방식(瀉陽補陰), 기를 소통시켜서 진액의 효용을 높이는 방식(行氣布津), 음기가 소모되는 기전을 미리 차단하는 방식(未傷先護), 등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왕맹영은 내경의 위기가 근본이라는 문장을 위가 진액을 생성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해석하는 등 인체내부 진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문인들의 의약관계기록을 분석하여 의학사상을 정리한 논문으로 호본상과 양소명의 논문이 실려있다. 호본상은 “황이주의 내경에 대한 견해”<sup>38)</sup>에서 황이주는 청대후기의 고증학자로서 경진연구자이면서 내경등 의학경정에도 연구영역을 넓힌 사람으로 평가하고, 비록 그의 저술은 남아있지 않지만 사료를 토대로 그가 의학경진연구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음운연구를 통해 의학경진 해석을 시도한 선각자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양소명의 황중의에 대한 논문<sup>39)</sup>에서는 청나라 초기에 활동한 문인 황중희를 소개하고, 그가 의학자는 아니었지

34) 단지 吳氏로만 알려져 있고 다른 사항은 미상임.

35) 黃海, 吳鞠通『溫病條辨』對『傷寒論』的繼承與發展,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36

36) 紀立金, 汪紀石脾胃學術思想探析,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39

37) 馮崇廉, 王孟英養陰保津學說探討,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42

38) 胡本祥, 黃以周治『內經』,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29

만 『張景岳傳』, 『高杲中墓志銘』 등에서 장개빈, 조헌가, 高斗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 온보학과 의학자들의 공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일면 편협한 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쳤다고 하였다.

양영교수의 “오씨상한금경록의 학술연원 연구”<sup>40)</sup>라는 논문이 있는데, 양영교수는 북경중의약대학의 진단학 교연실에 근무하는 설진에 관한 전문학자이며, 의사학 연구자 출신이다. 오씨의 『상한금경록』은 현존하는 최고의 설진전문서인데 이 책의 의의는 온열학설이 상한론과 구별되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논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유완소는 온열이 상한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려했지만 결국 사람들을 설복시키지는 못하였고, 오씨의 설진이 알려진 이후에 비로소 유완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6. 의서연구

본 항목에서는 『뇌공포자론』의 저작시기를 고찰한 논문, 『증류본초』의 인용문에 대한 연구, 『천금방』의 이본에 대한 연구, 『사재지방』과 『사부의전』과 관계된 논문을 의서연구라는 항목으로 묶어 설명하였다.

『雷公炮炙論』著作年代討論<sup>41)</sup>

『뇌공포자론』의 저작시기에 대한 고찰이다. 『뇌공포자론』의 저술년대에 대해서는 논자가 이미 1961년에 남북조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후대 1992년과 1994년에 祝亞平 등에 의해서 唐代 寶應年間(686-762)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논자는 축아평의 논지를 반박하는 입장에서 이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자는 이 글에서 祝亞平 등은 증류본초에 뇌공포자론이 인용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증류본초에 인용된 뇌공포자론에 관한 기록은 陳藏器的 『拾遺本草』를 베낀 것이므로 진정한 『뇌공포자론』이라고 볼수 없으며 또한 당나라 때로 추정되는 기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뇌공포자론』의 원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證類本草』墨盖下引“唐本”,“唐本注”討論<sup>42)</sup>

이 논문은 『증류본초』의 내용중에 “당본”, “당본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당대의 본초서 즉 『新修本草』가 아닌 『蜀本草』의 내용임을 밝힌 것이다.

39) 楊小明, 黃宗羲與醫學,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23

40) 梁嶸, 吳氏傷寒金鏡錄學術淵源探討,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48

41) 尙志鈞, 『雷公炮炙論』著作年代討論,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50

42) 尙志鈞, 『證類本草』墨盖下引“唐本”,“唐本注”討論,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85

『축본초』를 당본초라고 한 것은 축본초의 원래의 명칭이 『重廣英公本草』이며 영광은 『당본초』를 간행한 책임자 李勣을 말한다. 이런 경위로 축본초의 내용이 당본, 당본주라는 이름으로 증류본초에 인용되었다.

『千金要方』異文對照與研究<sup>43)</sup>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친 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과 교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천금요방[孫真人千金要方]의 조문을 직접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정리한 논문이다. 논자는 이 논문에서 교정의서국에서는 전 부분에 걸쳐 규범화를 시도한 흔적이 역력하며 보충된 내용도 많이 때문에 원문의 내용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있다고 주장하였다.

史堪之『史載之方』考<sup>44)</sup>

사감은 송대에 활동했던 사천지방의 저명한 의학자였다. 논자는 사감의 행적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사감의 저서인 『사재지방』의 내용을 간략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지서록해제』에 사감이 『지남방』을 지었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세간에서는 『지남방』이 『사재지방』의 이명이라고 하지만 논자는 『홍씨집험방』, 『전생지미방』의 내용을 토대로 이 두개의 책은 서로 다른 책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四部醫典』中的鍼灸學內容<sup>45)</sup> 白純 92

『사부의전』은 773-783년경에 만들어진 티벳의학의 대표의서이다. 현존하는 판본은 제5대 달라이라마 통치시절(1617-1682)에 교정간행한 것이 있다. 논자는 이 『사부의전』중에 나와있는 침구학 관련기록을 분석하였다. 논자는 분석하기를 『사부의전』의 내용에 있는 티벳의 침구학은 인도의학과 중국의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독자적인 이론적인 체계가 있고 수기법이 다양하며 火灸요법을 매우 중시하였고 또 침자방혈요법등에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였다.

## 7. 중서의결합과 중서의회통

중서의회통과 중서의결합에 대해서는 앞선 근대의학사연구 항목에서 설명하였지만 여기에서는 근대의학사연구와는 다른 입장의 두 개의 관련 논문이 있어 소개한다.

43) 林楠, 『千金要方』異文對照與研究,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87

44) 王振國, 史堪之『史載之方』考,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40

45) 白純, 『四部醫典』中的鍼灸學內容,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92

우선 왕진서의 중서의결합과 중서의회통의 차이점에 대한 논문<sup>46)</sup>이다. 이 글에서 논자는 중서의회통학과들이 역사적으로 서양의학이 도래하는 중에서 중의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학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서의결합은 서양의학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중의학을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전의 중서의회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이 두 가지의 구별에 관해 논술하고 있지만, 중서의회통의 역사적한계를 부각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중서의결합이 진정한 동서양의학의 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는 좀더 다른 관점의 글이 장기성의 글<sup>47)</sup>이다. 2002년 6월 27일에 북경중의약대학의 기초학교수들이 중의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왕홍도, 고헌민, 소보강, 이경업, 노조린 등 노교수들이 중심이 된 이 자리에서 중의학의 현대화는 중의학의 서양의학화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서의결합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중의학을 기본으로 해서 현대의학, 과학, 철학을 폭넓게 받아들여 중의학의 내용을 더욱더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글은 이 토론회에 대한 간략한 보고이다.

#### 8. 의학사연구에 있어 儒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적으로 의학의 발전에 유학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대의학사를 연구하는데 유학과 연결점을 찾는 논문들이 자주 발표된다. 2002년 중화 의사잡지에는 이와 관련해서 의학에서의 중용의 영향을 정리한 논문, 송명이학의 총체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 문인들과 의학의 관계를 기술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略論儒家中庸思想對中醫方劑學的影響<sup>48)</sup>

저자는 처방이름, 치료원칙, 처방구성, 약달이는 방법, 복용방법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용의 過不及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실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 文仕通醫現象析因<sup>49)</sup>

문인이나 학자들이 의학을 연구하는 이른바 유의가 의학사상에 출현하는 현상에 대

46) 王振瑞, 中西醫結合與中西醫匯通的本質區別,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122

47) 張其成, 北京中醫藥大學著名中醫藥專家暢談“中醫藥現狀與未來”,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72 - 이 글은 논문이 아닌 중화 의사잡지에 실린 회의결과보고이다.

48) 袁水, 略論儒家中庸思想對中醫方劑學的影響,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32

49) 黃芝蓉, 文仕通醫現象析因,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45



한 분석이다. 저자는 그 원인을 첫째로 유학의 이치와 의학의 이치는 일맥 상통하다는 것을 들고, 둘째로 의사와 정치가는 모두 존중을 받으며 사람을 치료하는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가 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셋째로 충효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학을 연구하게 된다는 것을 황보밀을 예로 들어 논증하였다. 네 번째로는 당나라 맹선의 예를 들어 정치를 하다보면 물욕에 휩싸이거나 과도하게 되는 등 건강을 잃기 쉬운데 그 와중에서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함을 알게 되며 양생을 위해 의학을 연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 宋明理學對中醫學理論的影響<sup>50)</sup>

송명이학이 중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 논자는 송대에 이학이 성행했던 것은 경전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이러한 학풍이 그대로 의학계에 전해져서 의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 9. 학과 및 분과의 의학사 관련연구

중국 의사학계에서 학과에 관한 총론적인 연구는 各家學說이라는 형태로 일단락을 지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학과연구에 있어서는 아직 보충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과별로 학과연구를 세밀하게 하거나 혹은 기존의 학술사상의 연원을 재조명하는 형태의 논문들이 종종 발표된다. 2002년 중화 의사잡지에 실린 관련 논문으로는 소아과와 방제학 분야에 있어서 세부적인 학술분과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고대의서에서 외과학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외과학의 의학사적 위치를 재조명하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화타의 관련기록을 발굴하여 그가 외감병에 나름대로의 조예가 있었음을 주장한 글이 발표되었다.

#### 兒科寒溫兩派學術爭鳴的源流與影響<sup>51)</sup>

논자는 이 논문에서 소아과에서 寒溫의 두 학파의 대립은 송대 錢乙과 陳文中이 마진과 두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을 한량한 약을 써서 치료하고 진문중은 온보하는 방법을 치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금원과 명청대를 거치면서 진을과 진문중의 방법 여러 의가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면서 두 학파의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아과학의 발전은 이 두 학파의 학문적인 논쟁

50) 孟慶云, 宋明理學對中醫學理論的影響,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31

51) 朱錦善, 兒科寒溫兩派學術爭鳴的源流與影響,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94

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方劑學發展思想的兩個特徵<sup>52)</sup>

방제학의 발전과정을 성무기의 『상한명리론』을 중심으로 양분하여 설명한 글이다. 『상한명리론』을 중심으로 이전의 방제학은 경험방위주의 발전과정을 거쳐왔고 『상한명리론』의 출현을 계기로 방제를 이치적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이 시작되었으며 금원시대의 백가쟁명을 거치면서 그러한 분위기는 더욱 공고히 되었다고 하였다. 명청대에는 방제의 수집과 동시에 방제의 원리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었다고 논자는 강조하였다.

戰國至三國時期我國外科學成就<sup>53)</sup>

전국시대와 漢代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의서, 즉 의학에서의 경전의 범주에 속하는 의서들(오십이병방, 치병백방, 내경, 난경, 상한론, 금궤요략, 본초경)에서 외과질환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고 정리한 것이다. 논자는 이 글에서 당시의 의서에서 외과질환에 대한 병인, 병기, 변증, 처방, 치방등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진보가 있었음을 제시하면서, 당시의 의학에서는 외과가 중요한 분과의 하나였음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華佗“六部三法”傷寒學說的歷史意義<sup>54)</sup>

세간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병원후론』과 『천금요방』, 『외대비요』 등에 화타의 육부삼법이라는 논의가 등장한다. 논자는 이 화타의 육부삼법이 장중경이 『상한론』에서 육경변증의 체계를 세운 것과 비교하면서 화타도 상한병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타의 이 삼법육문은 『소문·열론』에 나와 있는 육경과도 다르고 장중경의 육경과도 다른 독창적이 체계이며, 오히려 온병학자들의 위기영혈변증이나 삼초변증의 원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소수민족 및 지방의학사연구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각기 고유의 토착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티베트의학, 위구르의학, 조선의학, 몽고의학 등 중의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소수민

---

52) 張家瑋, 方劑學發展思想的兩個特徵,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35

53) 周俊兵, 戰國至三國時期我國外科學成就,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55

54) 曹東義, 華佗“六部三法”傷寒學說的歷史意義,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59

족의학이 있다. 따라서 의사학계에는 소수민족의학과 관련된 논문들이 종종 발표된다. 2002년에는 티벳의학의 기원에 대해 재조명해보는 논문과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여족의학에 대한 보고서형식의 논문, 그리고 장보소라는 의학자의 행적에 대해 현지 의료인이 관련사료를 정리해서 보고한 형식의 글이 발표되었다.

#### 藏醫學起源的新探索<sup>55)</sup>

이 논문에서는 티벳고원이 인류의 발상지라는 주장에 주목하면서, 티벳고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족의 의학, 즉 지금 중국에서 소수민족의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의학이 중의학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浙江畚族民間醫藥衛生述要<sup>56)</sup>

여족은 중국 절강성과 복건성 일대에 살고 있는 중국이 소수민족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이 여족의 위생상황과 여족의학의 특징을 기술한 소수민족의학에 대한 보고서이다.

#### 蔣寶素生卒年代初考<sup>57)</sup> 喬洪華 129

청대의 명의 장보소에 대한 기록을 장보소가 활동했던 江蘇省 현지 의사가 직접 사료를 찾아 학계에 보고한 것이다.

### 11. 병명연구

본 항목에서는 병명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중화의사잡지에는 매년 고 의서에 나와있는 병명을 선택해서 문헌적으로 고증하고 그것이 현대의학의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하는 소고형태의 논문이 발표된다. 주로 희귀 질병들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2002년에는 淫肉, 花柳毒, 軟癰에 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초강목』의 질병표기 중에 오자를 지적하는 논문과 『마왕퇴백서』 중의 『오십이병방』의 烏頭中毒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本草綱目』瘰癧徹骨痒<sup>58)</sup>

본초강목에 나와있는 표저의 증상중에 “뺏속까지 가렵다(徹骨痒)”라는 표현중에 가

55) 香多李先加, 藏醫學起源的新探索, 中華醫史雜誌, 32卷3期, 2002.07, p188

56) 竹劍平, 浙江畚族民間醫藥衛生述要,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195

57) 喬洪華, 蔣寶素生卒年代初考, 中華醫史雜誌, 32卷2期, 2002.04, p129

58) 何義勇, 『本草綱目』瘰癧徹骨痒,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9

렵다는 것을 신수본초, 의심방 등의 문헌에 근거해서 모두 “痛”의 오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견해를 문헌의 고증과 임상증상을 통해 밝힌 짚막한 글이다.

『衛濟寶書』淫肉釋義<sup>59)</sup>

『위제보서』는 송대 동헌거사가 지은 것으로 이 책에 “淫肉”에 대한 설명이다. ‘淫’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자칫 왜곡하기가 쉽지만 이것은 정상 신생조직이다. 저자는 이것을 『외과정중』에 나와있는 진실공의 견해와 현대의학의 정상신생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음육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한 소고이다.

花柳毒淋小議<sup>60)</sup>

서양의 性病에 해당하는 기록을 중의문헌에서 찾아 비교한 소고이다.

『五十二病方』烏頭中毒解救方藥簡析<sup>61)</sup>

馬王堆帛書의 오두중독치료법에 대한 고찰이다. 논자는 『오십이병방』에 나와있는 오두중독에 대한 치료법은 방법, 용약 등 내용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후대 오두중독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衛濟寶書』軟癭考釋<sup>62)</sup>

위제보서에 나와있는 연질의 내용을 고찰하여 이 병증의 전모를 추적해가는 소고이다. 위제보서에는 연질의 치료에 銀鍋子라는 특효약을 소개하였는데 은과자는 『본초강목』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금의 化銅罐子임을 찾아냈다. 그리고 『외과정중』에서 화동관자를 주약으로 하는 敗銅散으로 蟻拱頭라는 병증을 치료한다는 것을 찾아내어 『위제보서』의 연질은 蟻拱頭, 즉 현대의 소아의 두경부에 발생하는 만성궤양성 피부질환임을 밝혀내었다.

## 12. 기타

본 항목에서는 분류를 따로 정하기가 어려운, 그렇지만 중요한 의의를 갖는 논문 몇 편을 묶어 설명하였다.

59) 孫啓明, 『衛濟寶書』淫肉釋義,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25

60) 李順民, 花柳毒淋小議, 中華醫史雜誌, 32卷1期, 2002.01, p61

61) 談宇武, 『五十二病方』烏頭中毒解救方藥簡析,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16

62) 孫啓明, 『衛濟寶書』軟癭考釋, 中華醫史雜誌, 32卷4期, 2002.10, p255

古醫書의 脉是血脈非灸療感傳 毛良 125

여기서 말하는 고의서란 마왕퇴에서 출토된 의서를 말하며 논자는 이 마왕퇴의서중에 있는 맥이라는 기록이 혈맥임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 논문은 劉澄中이 그의 책 『臨床經絡現象學』에서 “맥은 뜸의 작용이 전달되는 통로이며 혈관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펴고 있는 글이다.

論“神農嘗百草一日而遇七十毒”內涵 郝保華 218

고대의 『淮南子』 등의 고전에는 신농이 하루에 70개의 약물을 맛보았다(혹은 70번 약에 중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논자는 이 글에서 ‘日’은 ‘干’의 의미이며 ‘一干’은 일년을 10干으로 보았을 때 그 하나의 干에 해당하는 즉 36일을 말하며 70이라는 의미는 고대에 3을 적은 숫자 7을 많은 숫자의 대명사로 쓰인 용례가 많기 때문에 “神農嘗百草一日而遇七十毒”의 의미는 “수십일이라는 적지 않는 기간동안 신농은 여러차례 약물에 중독되었다”라고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岐黃”考釋 朱建平 200

이 논문은 기백과 황제의 명칭이 의서에 등장하게 된 과정과 기백과 황제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는 좁게는 『황제내경』의 대명사로 넓게는 중의학의 대명사로 쓰이는 현상을 정리한 글이다.

#### IV.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2002년도 중화 의사잡지의 주요 게재논문을 수록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의학계에서 의학사 분야의 연구는 학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40년대부터 전문 학술잡지를 간행하였기 때문에 의학사 연구자들이 서로 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자극하여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풍토를 일찌감치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곳이 바로 본고에서 고찰한 중화 의사잡지이다. 필자가 본고를 쓴 목적은 중화 의사잡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중국의 의사학의 경향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 V. 참고문헌

中華醫史雜誌, 32卷 1期, 2002.01, 中國

中華醫史雜誌, 32卷 2期, 2002.04, 中國

中華醫史雜誌, 32卷 3期, 2002.07, 中國

中華醫史雜誌, 32卷 4期, 2002.10, 中國